

허정무호 일부
내일부터 훈련

허정무호가 칠레와 평가전(30일 오후 8시·서울월드컵경기장)을 앞두고 27일부터 소집 훈련을 시작할 예정인 가운데 소속팀이 해외 전지훈련을 떠나버려 개인훈련을 하고 있는 일부 선수들을 일찌감치 경기도 파주 NFC(대표팀트레이닝센터)로 불러들일 계획이다.

대한축구협회는 21일 "코칭스태프가 23일부터 파주 NFC에서 조기 소집훈련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달라고 요청해왔다"며 "현재 파주 NFC에는 지도자 교육 대상자 밖에 없어 언제든 훈련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전남 염동균·김치우·곽태휘 등

팀 해외전환 떠나는 10명 대상

조기소집 대상자는 22~26일 해외 전지훈련을 떠나는 제주 유나이티드(22일), 전남 드래곤즈(23일), 포항 스틸러스(26일) 소속 대표팀 선수다. 이에 따라 곽태휘, 김치우, 염동균(이상 전남), 황지수, 박원재, 황재원, 조성환(이상 포항), 조진수, 이동식, 구자철(이상 제주) 등 10명이 빠르면 23일부터 파주 NFC에 소집돼 코칭스태프와 함께 칠레전 준비에 나서게 된다.

특히 일부 코칭스태프도 22일 저녁 파주 NFC에 합류해 선수들을 기다릴 예정이다. 대표팀 관계자는 "이들 10명에게는 소속팀 동계훈련 시작 때 실시했던 쿠파 테스트(일종의 체력 검사)와 체지방 측정치 등 자료를 갖고 오라고 연락했다"며 "간디션 점검을 위한 기초 자료를 분석해 훈련량을 조절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성화호 또 무승부

스위스 프로축구 FC툰과 평가전

스페인에서 전지훈련 중인 올림픽축구 대표팀이 두 번째 평가전에서 무승부에 그쳤다.

박성화 감독이 이끄는 올림픽대표팀은 21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스페인 말라가에서 벌어진 스위스 프로축구 1부리그 FC툰과 평가전에서 골 결정력 부족을 드러내 0-0으로 비겼다.

지난 17일 1차 전승지 스페인 라망가에서 가진 엘체FC(스페인 2부리그)와 첫 연습경기에서 박주영(서울), 김승용(광주)이 골을 터뜨렸지만 2-2로 비긴 박성화호는 전승 평가전 전적 2무를 기록했다.

박성화 감독은 이근호(대구)와 새내기 조동현(성남)을 선발 투입으로 내세우고 이요한(전북), 박지훈(수원), 이상호(울산), 조영철(오호하마FC)을 미드필더진에 배치했다. 포백에는 최철순(전북), 김근환(경희대), 김진규(서울), 박주호(송실대)가 나왔다.

안정환 다시 부산행

안정환(32·사진)이 8년 만에 다시 부산 아이파크 유니폼을 입게 됐다.

K-리그를 포함해 이탈리아, 일본, 프랑스, 독일 등 5개국 리그를 경험했던 안정환은 지난해 호화군단 수원 삼성 유니폼을 입고 김대희에서 헛트릭을 작성하며 반짝 활약을 펼쳤지만 정규리그 15경기에선 무득점에 그쳤다.

수원은 그의 몸값을 부담스러워했고 결별 수순을 밟았다. 결국 안정환이 선택한 종착지는 '마음의 고향' 부산이다. 안정환은 21일부터 곧장 부산 아이파크의 일원으로 합류했다.



베이징올림픽 D-200



베이징올림픽 D-200인 21일 태릉 선수촌에서 새벽 훈련에 나선 선수들이 뜨거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종합 9위에 오른 한국은 2개 대회 연속 10위권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규혁 세계 빙상 2연패

'빙속왕제' 제리미 제치고 금

ISU 세계 스피리트 선수권

남자 스피드스케이팅의 '말향' 이규혁(30·서울시청·사진)이 2008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스피리트선수권대회에서 역대 우승을 일궈내며 2연패에 성공했다.

이규혁은 21일(한국시간) 네덜란드 헤렌벤에서 펼쳐진 대회 마지막 남자 500m 2차 레이스에서 34초85로 1위를 차지한 뒤 1,000m 2차 레이스에서도 1분08초82로 또 한번 1위에 올라 총점 139.170점을 획득, 전날 종합 3위에서 선두였던 제리미 워더스푼(캐나다·139.265점)을 제치고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500m와 1,000m 기록 합계로 순위를 가리는 세계스피리트선수권대회에서 한국 선수가 2연패를 차지한 것은 이규혁이 처음이다.

또 전날 6위로 마감했던 문준(26·성남시청)도 500m(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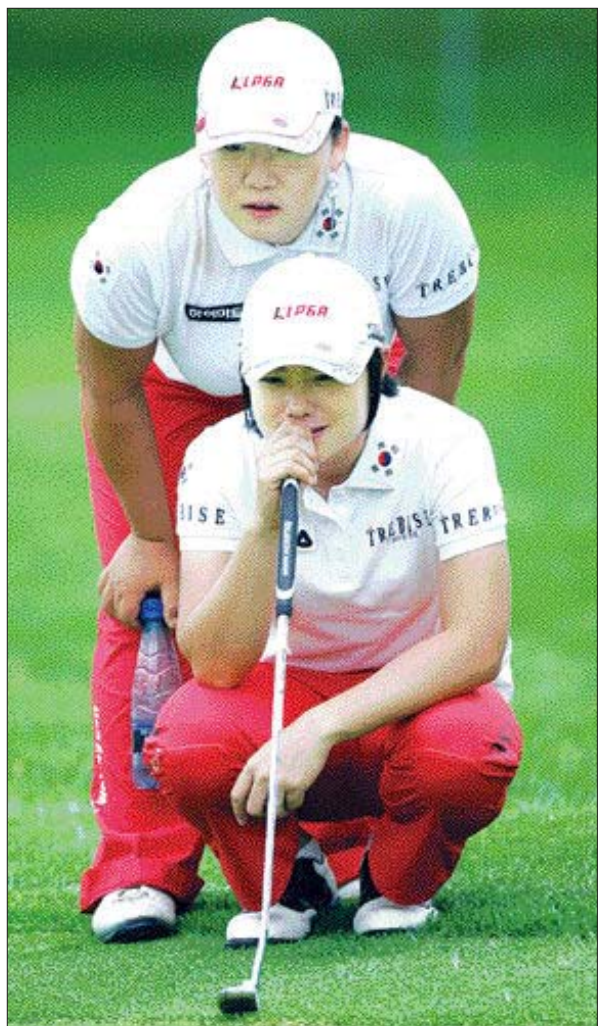
초0)와 1,000m(1분09초20) 2차 레이스에서 각각 3위를 기록, 총점 140.080으로 동메달의 기쁨을 맛봤다.

하지만 '단거리 전문' 이강석(23·의정부시청)은 500m 2차 레이스에서 35초33으로 7위에 그치고, 1,000m 2차 레이스에서도 20위(1분11초25)로 밀리면서 총점 141.600점으로 종합 10위에 만족해야 했다.

이로써 한국 남자 스피드스케이팅은 이번 대회에서 우승을 비롯해 전부 '톱10'에 포함되는 역주를 펼쳐 세계적인 스피리트 강국으로 인정을 받게 됐다.

전날 종합 3위에 머물렀던 이규혁은 이날 500m 2차 레이스에서 역주를 펼치면서 34초85의 좋은 기록으로 1위에 올라 역대 우승의 발판을 마련했다.

자신의 주종목인 1,000m 2차 레이스를 승부처로 삼은 이규혁은 종합 1위를 달리던 워더스푼과 함께 마지막 조에 편성돼 1분08초82로 당당히 1위를 차지하면서 7위에 그친 워더스푼을 총점 0.095점(반올림 0.1점) 차로 제치고 기적적인 역전 우승에 성공했다.



20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월드컵 여자골프 대회 마지막 라운드 4번 홀에서 한국 대표 신지애(위), 지은희가 퍼팅라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신지애·지은희 뼈아픈 역전패

필리핀에 막판 추격 당해 준우승

월드컵 여자골프대회 최중

세계 정상에 눈앞에 뒀던 한국여자골프가 필리핀의 막판 추격에 허무한 역전패를 당하면서 안타깝게 준우승에 머물렀다.

한국여자프로골프 1. 2인자 신지애(19.하이마트)와 지은희(22)가 짝을 이룬 한국 대표팀은 20일(한국시간) 남아공 선시티의 캐리 플레이어골프장(파72.6천466야드)에서 열린 월드컵여자골프대회 최종 라운드에서 필리핀에 2타차로 우승을 내줬다.

두 선수가 각각 플레이를 펼쳐 홀아웃 좋은 스코어를 팀 성적적으로 삼는 포볼 방식으로 치른 이날 한국은 신지애가 이글 1개와 버디 2개를 뽑아내고 지은희가 버디 1개를 보태 4타를 줄였지만 3라운드 합계 16안더파 200타로 필리핀(18안더파 198타)에 1타차 우승컵을 뺏겼다.

2005년 첫 대회 때 준우승, 2회 대회 5위, 그리고 지난해 3회 대회에서 3위를 차지하며 세계 정상급 실력을 입증했던 한국은 1. 2라운드에서 선두를 달려 가장 우승에 근접했던 만큼 이번 대회 준우승은 못내 아쉬운 결과였다.

첫날 단독 선두를 달렸지만 2라운드에서 필리핀에 공동 선두를 허용하며 빼앗겼던 한국은 미국여자프로골프



홍국생명 김연경

MVP 3연패 도전



여자 프로 배구 홍국생명의 '토종 거포' 김연경(20·사진)이 외국인 선수를 능가하는 막강 화력을 과시하며 3년 연속 겨울리그 최우수 선수(MVP) 목표를 향해 순항하고 있다.

프로 무대에 처음 나선 2005~2006년 신인왕과 MVP를 석권하는 괴력을 뽐냈던 김연경은 지난 시즌 2년 연속으로 MVP를 수상해 한국 여자배구를 대표하는 최고의 스파이커로서 흔들림없는 인지를 굳혔다.

지난해 5월 무릎 수술을 받은 뒤 부상 우

외국용병들 제치고

공격 3개부문 선두

려에도 국제배구연맹(FIVB) 월드컵에 출전해 필립 날더니 이번 겨울리그 들어도 각 부문별 상위에 골고루 이름을 올려놓는 활약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김연경은 3라운드를 마친 21일까지 득점 1위(279점)와 공격종합(성공률 46.65%), 오픈공격(성공률 36.58%) 각 1위 등 전 부문에서 돋보이는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

득점 부문에서 2위인 한국도로공사 한송이(277점)가 바짝 추격하고 있지만 세트당 득점에서는 차이가 커 현재 페이스를 유지하면 지난해 도로공사의 외국인 선수 레이철 반미터에게 아깝게 내줬던 득점왕 타이틀도 얼마든지 탈 수 있다.

김연경은 또 지난해보다 강타의 비중을 줄이면서 연타 공격과 코스를 노린 공격을 늘리는 등 기교와 노련미에서도 한층 나아졌으며 불필요한 범실도 많이 줄었다.

소속팀인 홍국생명은 김연경의 활약을 앞세워 KT&G와 개막전 패배 이후 파죽의 11연승을 달리면서 통합우승 3연패 목표에 다가서고 있다.

김연경의 3년 연속 MVP 꿈도 무르익어 가고 있는 셈이다.

앤서니 김 3위

PGA 크라이슬러클래식 최종

재미교포 앤서니 김(23·나이키골프)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밥 호프 크라이슬러 클래식에서 어렵게 공동 3위를 차지했다.

PGA 투어 2년차 앤서니 김은 21일(한국시간) 캘리포니아주 팜스프링스의 라킨타골프장 클래식 코스(파72)에서 열린 대회 최종 라운드에서 3안더파 69타에 그쳤다.

선두에 4타 뒤진 공동 2위로 5라운드를 시작했던 앤서니 김은 케니 페리(미국)와 함께 최종 합계 22안더파 338타를 쳐 올 시즌 처음 출전한 대회를 공동 3위로 마무리했다. 우승컵은 26안더파 334타를 친 D.J 트라하(미국)에게 돌아갔다.

위창수(36·테일러메이드)는 보기 3개가 아쉬웠지만 버디 8개를 쏟아내며 5타를 줄여 합계 16안더파 344타로 공동 22위에 올랐고 올해 PGA 투어 정식 멤버가 된 양용은(36·테일러메이드)도 14안더파 346타로 공동 29위까지 순위를 끌어 올렸다.

골프·렌드 회원권거래 전문기업
특별회원권
골프 선수시세평가 골프 장 시세평가
골프 장 시세평가 3,450 송림비 1,700
남량주 4,400 송림비 골드 1,900
승 주 8,200 도보양 2,100
상담문의 (062)351-0095
www.golfguide.com